



# 널 믿는다

송종웅/심리학 박사, 서울학습장애상담센터 소장

**청** 소년 심리극 집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 
윤희는 중학교 2학년인데, 성적 때문에  
부모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연기하고 있었  
습니다.

아버지 : “성적이 왜 이렇게 떨어졌니?”

윤희 : “열심히 한다고 했는데...”

어머니 : “열심히 했다고? 그런  
데 결과가 이 모양이  
니?”

윤희 : (대답없음)

어머니 : “너 요즘 보니까 남자  
애들하고 어울려 다  
닌는 것 같던데. 남  
자애들 만나느라고  
공부 안하는 거지?”

윤희 : (대답없음)

어머니 : “아휴, 답답해. 말 좀  
해라.”

아버지 : “아버지는 널 믿는다.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았  
으면 좋겠다.”

윤희 : (여전히 대답없음)

“널 믿는다”라는 아버지의 말이 인상적이었던  
데, 윤희는 여전히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서, 그 순  
간 윤희는 마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지  
가 궁금하였습니다. 그래서 물어보니 이런 대답을  
하는 것이었습니다.

윤희 : “날 믿는다구요?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씀

이세요? 뭘 하고, 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요? 아무렇게  
나 해도 된다는 건가요? 아니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건  
가요? 그냥 모호하게 믿는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 
되고 저건 안 된다고 말씀해주는 것이 편하겠어요.”

“널 믿는다”란 말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흔히 쓰  
는 말입니다. 부모들은 이 말을 하면서 자녀를 믿어  
주는 좋은 부모가 된 것 같아 으쓱해 합니다.

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구체적인 제한을  
가하게 되면 자녀는 불만스러운 것이 생기고 때로  
는 부모에게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.

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불만을 갖거나 저항하는  
것이 싫어서 그리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  
기가 싫어서 “널 믿는다”는 말로 피해나가는 것일  
지도 모르겠습니다.

어찌 보면 “널 믿는다”는 말은 부모가 편하고  
자 하는 말입니다. 하지만 윤희의 말을 들어보니 자  
녀 입장에서는 이 말이 부답이 되고 혼란스럽게 느  
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

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도 되고 해서는 안  
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하며, 그런 한  
계를 제공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.

물론 행동에 제약을 가할 때 갈등이 일어나기도  
하지만, 이러한 부모-자녀간의 갈등은 대화를 통해  
서 해결해나갈 수 있으며,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공  
하고 서로간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자녀는  
안정감을 느끼고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  
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.

단지 부모가 편한 것만 취하기 보다 힘들더라도  
좋은 스승이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?

